

사직분수대 설계¹⁾

김영인* · 김민중* · 김정수* · 홍형순** · 장태현*

*청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 **중부대학교 건설공학부

Design of Sajik Fountain

Kim, Young-In* · Kim, Min-Joong* · Kim, Joung-Su*
Hong, Hyoung-Soon** · Chang, Tai-Hyun*

*Dept. of Environment Landscape Architecture, Cheongju University

**Faculty of Construction Engineering, Joongbu University

ABSTRACT

This project provides designs for a renewal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related to old fountains typically located in cities. In many cities, the fountain element has been located with a strategic position in the city. Located in the central area of Cheongju, the Sajik Fountain has significant position in the local city. However, due to changes in the surrounding area and the old-fashioned form of the fountain, it has not contributed substantially to the cityscape.

Including the historical Seomoon Bridge and Moosim-Cheon(stream) as Wooam-San (mountain) setting, the surrounding environment of our planning site appear to be a locally important place. In respect to building with a broad function, landscape designers focused on the reconsideration of symbolization as landmark, of the image of Cheongju city, of recognition by removing the horizontal line and of the substantial civil's use rate. Achieved by working with a sculptor, a new function, the main facility, is managed sculpturally and imaged in a drop of water representing clear, fresh Cheongju city. This plan introduces the image of Wooam-San, Moosim-Cheon(stream), Sangdang-SanSung(A mountain fortress) and elicit a sense of peace, symbolic of Cheongju. The significance of this project is that as the current cities are increasingly developed, small areas left alone in city are reconsidered and offered to the public as efficient, resting and active outdoor space.

Key Words : Cityscape, Sajik Fountain, Environmental Sculpture

I. 서론

모든 도시들의 기반이 되는 것은 산과 들, 강과 같은 자연환경 요소들이다. 이러한 자연환경에 의지하여 형성된 작은 도시들이 산업화 현대화의 과정을 거치며 각종 도시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현대 도시는 대부분 과밀화 현상을 보이며 이 결과 지나치게 인공성이 강조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 내에 자연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도입되는 도시공원과 녹지들은 이른바 인공화된 자연요소라 할 수 있다.

시민들은 일상적인 도시생활 속에서 자연성을 접하기를 원하며 자연요소를 이용하는데 특히, 수목과 더불어 물(水)요소를 즐겨 선택하여 왔다. 분수를 비롯한 물 요소는 시각 청각 촉각적 효과로 즐거움을 제공하며, 공간에서의 중요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경관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물 요소는 공간에서 동적인 분위기와 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특히 야간에는 조명시설과 어울려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하기에 효과적이므로 도시경관 조성에 즐겨 사용된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도시마다 분수대는 중요 지점에 위치하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청주시의 구도심에 위치한 사직분수대 역시 그 규모는 작으나 입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또 오랜 기간 동안 청주 시민들에게 방향성과 식별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랜드마크의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주변상황의 변화로 새로운 환경이 요구되어 왔다. 즉, 20여 년 전에 조성된 사직분수대는 주변환경과 교통여건 등이 급격히 변화한 결과로 그 효용과 기능이 저하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조성 당시와 현재의 관점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낡고 진부한 형태로 사직분수대가 갖는 경관적 가치가 저하되어 왔다. 더구나 원형의 수조가 평면적인 형태로 낮게 조성되어 있고, 주변에 식재된 조경수목이 성장함에 따라 분수가 가동되지 않는 기간에는 식별성이 떨어지는 기능적인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본 설계의 목적은 건물 교통여건 등 주변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시대적 상황에 걸맞는 랜드마크 요소로서 사직분수대를 리노베이션(renovation)하는데 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예상되는 효과는, 랜드마크로서의 시각적 기능과 함께 도심지에 위치하고 주변의 상업시

설과 주거지와 인접하여 도심내의 휴식공간으로서 가능성도 큰공간이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노후된 분수대와 그 주변공간을 새롭게 조성하여 도시 내의 새로운 경관요소로서의 기능은 물론 시민휴게 및 여가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II. 현황분석 및 종합

1. 요구사항의 분석

사업주(client)인 청주시는 시의 위상과 시세가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분수대가 낡고 진부한 모습으로 남아 있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분수대의 형태가 진부하여 청주시민의 독창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지 못함.
- 평면적인 분수대의 형태로 동절기 등 분수가 가동되지 않는 기간에 인지성이 낮음.
- 단순히 시각대상물로서의 기능이므로 실질적인 이용이 배제됨.
- 주변의 토지이용, 건물, 교통 등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노후된 분수대가 도시경관의 질을 저하시킴.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수대에 대한 사업주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분수대를 통해 청주시의 독자적인 이미지를 표현할 것.
- 기존 분수대에 비해 수직적인 규모를 갖출 것.
-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이미지를 담을 것.
-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경공간을 조성할 것.
- 단일 계절성을 탈피할 것 등이다.

2. 입지특성

충청북도의 도청소재지로서 행정뿐만 아니라 정치·경제·교육·문화의 중심도시인 청주는 서울 동남방 128km 지점에 위치하여 중부권의 내륙도시로 반경 40km 내에 대전, 천안, 괴산, 보은 등이 인접해 있다. 청주I, C를 나와 청주도심으로 진입시 마치 환영이라고

하듯 도열해 있는 5km의 시원한 플라타너스 가로수 터널은 4계절 모두 뛰어난 경관 및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 길을 지나 시내에 들어서면 시가지를 아늑하게 감싸듯 솟아있는 우암산과 도심을 관통하여 휘감아 흐르는 무심천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유서 깊은 교육문화의 도시이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인 「직지」를 탄생시킨 역사가 깊은 도시일 뿐만 아니라 2000년도 '살기 좋은 도시평가1위'를 수상할 정도로 생활환경면에서도 손색없는 도시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문화적, 유적으로 볼 때 청주국제공항과 명암유원지, 흥덕사지, 상당산성, 국립청주박물관, 청주동물원, 우암어린이회관, 용두사지철당간, 부모산, 컹대산을 비롯한 청주시민의 날, 충북예술제, 인쇄출판문화축제, 청주공항엑스포와

같은 행사도 겸하고 있다.

청주라는 도시의 형국은 동측은 산이 배경을 이루고 서측이 넓게 트여있다. 서측으로 고속도로가 진입하며, 청주I, C로부터 시내에 이르는 도로를 이용하여 청주의 중심지에 이르는 결절부에 위치한 대상지는 1,548㎡의 면적으로 삼각형의 부지형태를 이루고 있다. 대상지 주변에는 청주시의 주요한 자연경관요소인 우암산을 배경으로 무심천이 흐르고 유서 깊은 서문교가 위치하고 있다.

3. 현황 및 주변환경

사직분수대는 조성된지 20여 년이 경과되었고 청주시의 구도심으로 접근하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인접하여 있다. 과거에는 대상지와 접한 도로가 모두 자동차도로로 이용되어 교통섬(traffic island)의 기능이 컸으나, 현재에는 교통여건이 바뀌어 전면도로를 제외하고는 차량통행이 적어 주차 및 보행이 주로 이루어진 곳이다.

주변 건물들로의 상가군이 밀집하고 있으므로 상가 이용자들, 상가주민, 인근 거주자 등의 유동인구가 매우 높은 편이다. 반면에 진입공간 및 다른 이용공간이 없어 대상지에 대한 실질적인 이용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로 차를 타고 지나치며 보는 정도로 효용성이 떨어져 있었다.

전체부지는 평탄하며 녹지대 한 가운데의 분수대 자체는 시간적으로 노출강도가 적으나 오히려 어느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지역 봉사단체의 상징탑이 강하게 노출되어 있다. 삼면은 생활타리로 둘러 쌓여 있고 소나무, 향나무, 둥근향나무 등의 수목과 화단,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어 이용접근이 배제된 공간임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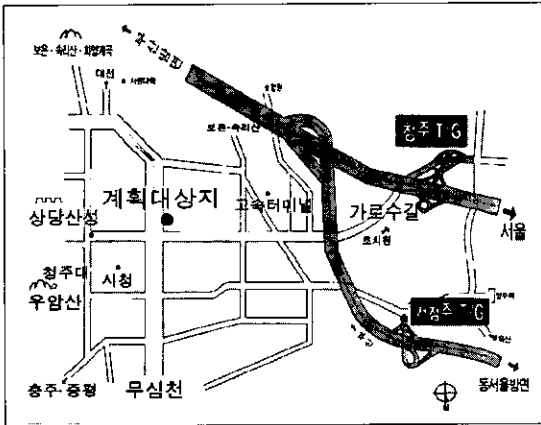


그림 1.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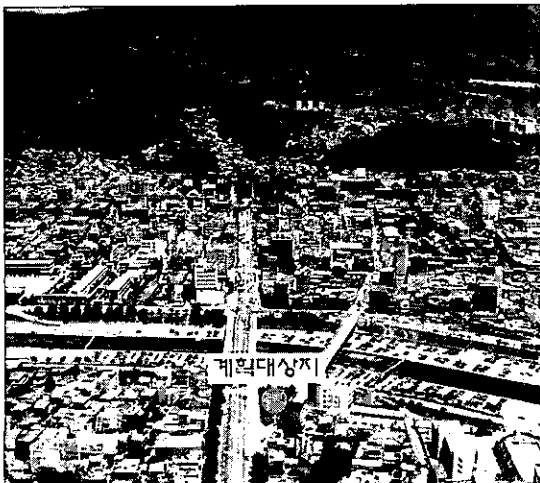


그림 2. 입지현황사진



그림 3. 현황사진

4. 분석의 종합

당초에는 3면의 도로가 차량 통행이 빈번하여 교통섬(traffic island)으로서 단순히 시각대상으로서의 녹지와 분수대로 조성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고 비교적 수고가 큰 교목이 식재되어 있으므로 분수대에 대한 인지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하겠다.

현재는 6차선의 전면도로만이 도심으로 진입하는 주 접근도로 차량통행이 많으며, 본 대상지에 대한 주요 조망구간을 이룬다. 무심천변 하상도로가 개통되었으나 주차장으로의 이용이 강하며 서문교의 차량통행이 차단되어 나머지 2개 면의 도로는 기능이 매우 약화되어 있다. 따라서 도로 폭을 조정하여 기존 녹지대를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부분적으로 이용자들의 접근과 실질적인 이용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설계를 통해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design issues)는 '청주시의 도시상을 표현할 수 있는 분수대 조성', '주변 조망구간으로부터의 인지성 제고', '실질적인 이용공간으로서의 기능부여' 등을 들 수 있다.

III. 기본구상

1. 기본방향

대상지의 현황과 설계여건 등을 종합한 설계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지특성을 감안하여 경관성 및 상징성이 요구되며, 전면도로로부터의 인지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직적 형태의 분수대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동절기가 긴 우리 나라의 기후를 감안하여 분수가 가동되지 않는 기간에도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 조형적인 조각분수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단순한 시각대상물만의 기능에 더해, 분수대 주변 공간은 인근 거주자 및 상가 이용자들이 실질적인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한다.

넷째, 분수대 주변공간은 짧은 휴식, 기념사진촬영 등의 이용이 예상되며, 이를 위해 진·출입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섯째, 기존의 수형이 양호한 소나무 및 몇몇 수종들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한다.

2. 기본구상

다음과 같은 기본구상으로 상징성과 조형성을 부각시키고, 이용객들을 유도시키도록 하였다.

첫째, 청주를 대표하는 우암산과 무심천, 상당산성의 이미지를 도입하여 청주시의 상징성을 공간에 부여하고, 각각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했다.

둘째, 상징적 조형물로서 맑고 깨끗한 청주를 형상화한 환경조형물을 안개분수와 함께 연출하도록 했다.

셋째, 바닥의 재료를 달리하여 분수대 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도를 두어 이용자들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했다.

넷째, 평평한 지형에 변화를 주어 수목과 더불어 환경조형물의 뒷 배경을 이룸으로써 상징성과 조형성이 부각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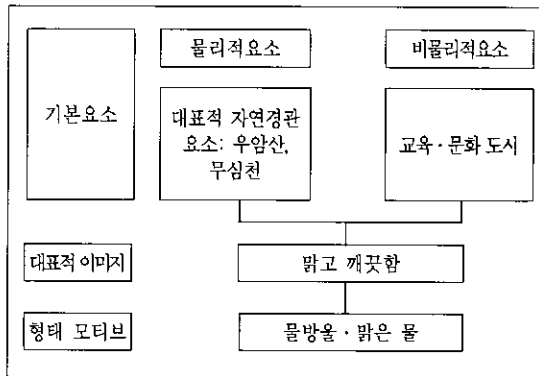


그림 4. 청주의 이미지 형상화 과정

3. 공간구상

우암산과 무심천, 상당산성의 이미지를 도입하여 청주시의 상징성을 공간에 부여하고, 각각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했다. 동측으로 우암산을 형상한 마운드를 두고, 무심천을 연상케하는 물길모양의 바닥포장과 상당산성의 이미지와 유사한 앉음벽(sitting wall)을 이용한 공간적 형태의 특징은 같게 하되 대안1(그림 5 참조)은 환경조형물을 5개, 4개, 3개로서 비교적 많은 수로 계획하였고, 선정된 대안2(그림 6 참조)는 1개, 3개, 1개로 그 수를 제한하였다. 조형물 주변을 감싸도록 안개분수를 연출하고, 바닥의 재료를 달리하여 분리를 해주도록 한다. 수형이 아름다운 기존 조형소나무는 그대로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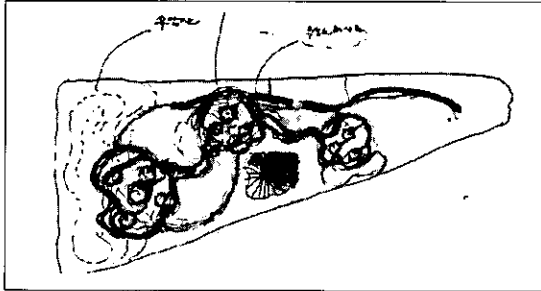


그림 5. 공간구상 대안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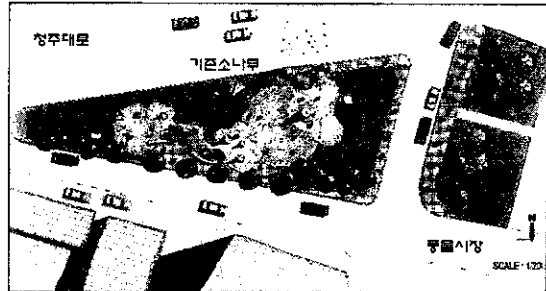


그림 7. 기본계획도



그림 6. 공간구상 대안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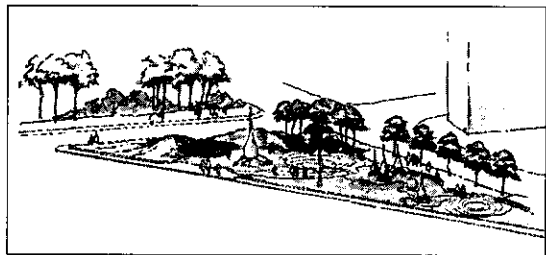


그림 8. 스케치

IV. 기본설계

1. 공간 및 시설계획

청주시는 우암산, 무심천, 상당산성 외에 직지, 서문교, 플라타너스 길 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중 청주시를 대표할 만한 우암산과 무심천, 상당산성의 이미지를 도입하여 본 대상지에 나타낼 수 있도록 재고하였다. 우선 분수대 후면의 축산(mounding)은 우암산의 이미지로 분수대의 뒷배경을 이루고, 무심천의 형상을 본떠, 물이 흐르는 듯한 패턴의 포장을 도입하였다. 편익시설로는 상당산성의 성벽과 같은 이미지로 돌쌓기 앉음벽(sitting wall)을 설치하여 휴게기능을 수용하도록 하였다. 전반적으로 공간의 활용은 분수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후면 녹지가 배경을 이루도록 하였다.

중심시설인 분수대계획은 환경조형물을 도입한 분수가 되도록 하였으며, 청주시의 이미지와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안개분수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2. 환경조형물

부지내의 중심시설인 분수대는 환경조형물²⁾을 도입하였다. 청주시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맑음 깨끗함'으로



그림 9. 이미지 사례

규정하고, 이를 형상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형태 모티브를 '물방울'로 정하였다. 맑은 물방울이 떨어지는 형상을 석재를 이용하여 조각적으로 처리하였고, 크기를 변화시켜 5개의 환경조형물로 적정 배치하여 도입하였다.

환경조형물의 주변으로 평상시에는 환경조형물로 떨어지는 분수, 분위기 연출시에는 환경조형물 주변을 감싸는 안개분수가 되어 물 요소를 환경조형물과 함께 강하게 표현하였고, 물의 저장용기를 조각물 밑으로 두고 트랜치를 두어 분수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조각물로의 접근이 가능하여 직접 손으로 만져 볼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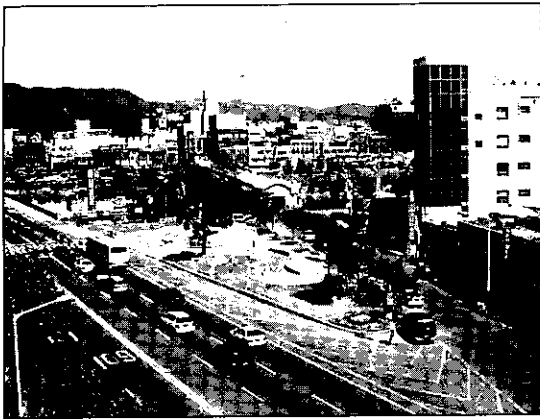


그림 10. 조성 후 전경



그림 11. 조성 후 이용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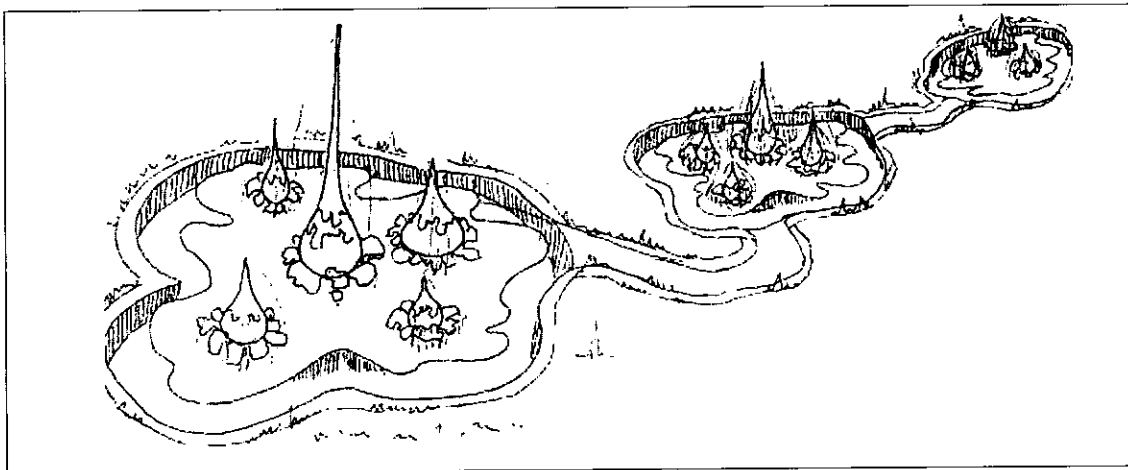


그림 12. 환경조형물 배치를 위한 초기 구상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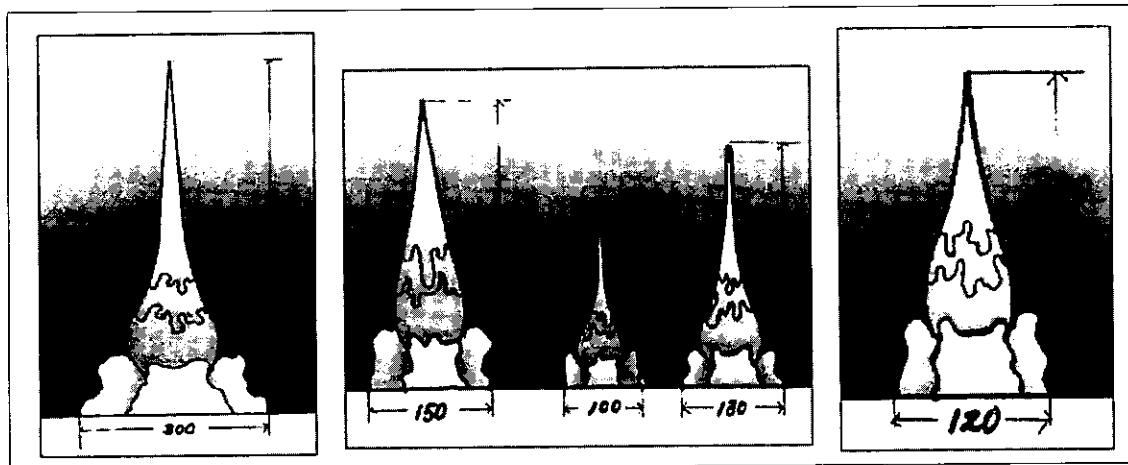


그림 13. 환경조형물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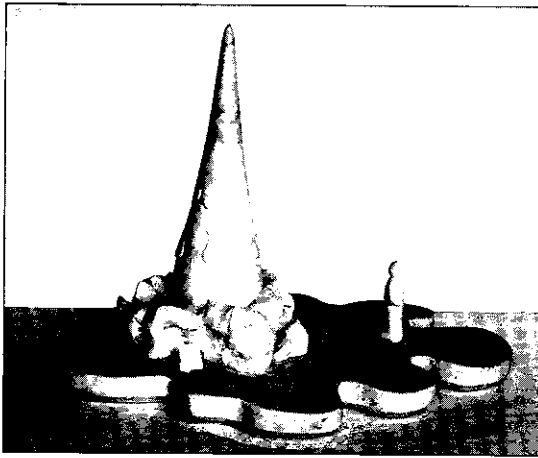


그림 14 . 환경조형물 study model(부분), 대리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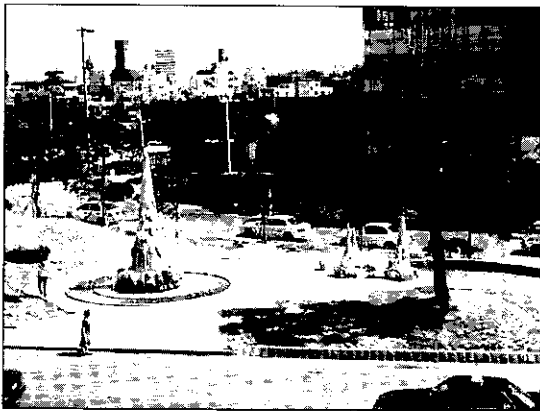


그림 15 . 준공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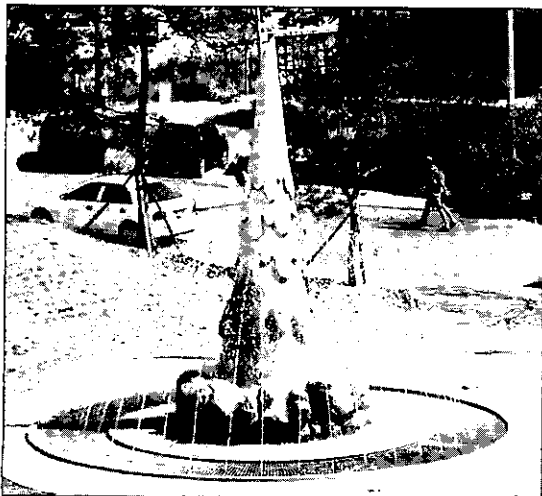


그림 15 . 준공후 근경

V. 결론

본 설계는 도심지 내에 위치하며, 조성된지 오래되어 노후화된 분수대자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당초 분수대 조성당시에 비해 주변 여건이 크게 변하였으며, 분수대 자체의 시설이 낡고 진부한 형태로 도시경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여건이었다. 이러한 점에 비해 입지조건과 그 연륜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도시의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도시경관자원이다.

분수대를 새롭게 조성하는데 있어 설계자는 '랜드마크로서 상징성 제고', '청주시의 이미지를 형상화', '수평적 형태를 탈피하여 인지성 제고', '실질적인 시민의 이용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도시내의 작은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였으나 관련분야의 합동으로 작업이 진행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즉, 공간의 입지특성과 가치를 파악하고, 이용성과 의미를 부여하는 조경의 역할과, 구체적인 형상을 만드는 조각가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었다.

시공을 마친 현재, 사직분수대는 평일과 주말을 막론하고 다양한 이용행태가 행해지고 있는데 앉음벽(sitting wall)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 환경조형물을 만지고 관찰하거나, 물을 적시며 시원해 하는 모습, 환경조형물에서 일어나는 놀이, 대상지 내에서 롤러브레이드를 타는 모습 등을 볼 수 있다. 과거에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단순한 시각대상물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실질적인 공간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본 사직분수대 설계의 의의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도시가 변모함에 따라 도시 내에 방치된 작은 공간들을 새롭게 가꾸어 도시경관을 제고시키고 시민들의 이용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작업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주 1. 편집자 주: 상기작품은 청주시청의 의뢰로 2000년 7월 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준공되었음.
- 주 2. 조각가 김태덕과 공동으로 작업됨.

원고접수: 2001년 6월 23일
 최종수정본 접수: 2001년 7월 25일
 2인 익명 심사필